

與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野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

尹 대통령 대국민담화 파장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 소집”
민주당 “정신적 실체 재확인”
조국혁신당 “탄핵 표결 앞당겨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사실상 조기퇴진 등 거구에 대한 사항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네 번째 대국민담화는 하야 및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는 게 골자다. 이같은 입장 발표는 정치권의 더 큰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여야 정치권은 술렁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날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담화를 보고 당에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14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국민의 힘에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는 온갖 거짓말로 극우 태극기 부대를 선동해 국민과 맞서 싸우라는 저급한 선동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 내는 걸 보니 착잡하다”며 “이제 보수정치권 싹 분리 수거하고 갈아엎는 방법 밖에 없다. 우선 부정선거론자 싹 갖다 버리자”고 강조했다.

정치권 밖에서도 윤 대통령의 담화에 부정적인 입장이 확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담화 발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TV화면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뉴스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거나 마찬가지였다는 발언도 했다”라며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탄핵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담화는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호소하고, 탄핵안 통과 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심의 등을 고려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외신들도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문을 긴급 타전하며 국내 정치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

민주당·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손경식, 김기문, 송치영 등 참석
“더 큰 피해 입지 않도록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제단체 대표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경제단체 긴급간담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김원이 산자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가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자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간담회를 열고 “상황이 매우 어렵다.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왜 매년 희생은 경제 뒷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곧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연말대목인데, 기업도 기업이지만 골목상권조차도 매우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율, 주식, 자본시장 문제

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고 (당의) 외부 각종 대책단위들이 있는데, 대안을 나름 마련하고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도 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정부에 제안도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현장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귀담아 듣고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선출

“탄핵 표결, 의총 통해서 결정”

원조 친윤(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12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권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이날 긴급 입장 발표에서 밝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당론 ‘찬성’과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에 선을 그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는 총 투표수 106표 중 권성동 원내대표가 72표, 김태호 후보가 34표로 당락이 갈렸다. 여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계를 대표하는 권 원내대표와 친한계의 지지를 받는 김 후보의 대결로 관심이 모아졌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후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한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

는 것에 대해서는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총을 열어서 총의를 모아보겠다”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할 것이냐는 물음엔 “그 부분은 의총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의원 각자의 의견은 존중 받아야 하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 단일대오가 가야 한다. 모든 것을 의총을 열어서 중지를 모으려 총의를 모아서 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가결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네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을 표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박태홍 기자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여당을 배제한 고점단체와 비교점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도 진행됐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들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정지된다.

“필요시 시장심리 반전할 수 있도록 대응”

>> 1면 ‘의환위기 없지만...’서 계속

정부는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소상공인·부동산·건설업계 등에도 현 경제상황과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대한 해외의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